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 부산광역시 금강 공원에서 재선충병 5년내 완전방제 선포대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부산 금강공원에서 2009년 2월 11일 14시에 201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목표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5년내 완전방제 선포대회」를 개최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에서는 그간 국가, 지자체, 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날 선포대회에는 정광수 산림청장, 배영길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진복 국회의원, 최찬기 동래구청장을 비롯하여 산림공무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날 주요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5년내 완전방제 선포, 산림청장의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선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발대식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선포대회장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비 및 소나무재선충병 판별이 전시되어 산림병해충 생활사, 예찰 및 방제방법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생장정지기 도달한 임목 벌채한 후 탄소흡수 능력 뛰어난 수종 조림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벌기령이 지나 생장정지기에 도달한 양구군 양구를 수인리 산1-1번지 약 8.2ha 국유림내 낙엽송 등 임목 2,200여본 1,200입방을 벌채 목재로 생산하여 국산 목재 공급율을 높이고 그 자리에 생장이 빠르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어 바이오 순환림으로 조성키로 하였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착수한 벌채사업은 나무가 서 있는 상태로 매각할 경우 벌목업자들이 나무를 생산해내기위한 과도한 작업

로 설치로 산림훼손이 많아질것을 우려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업비 6,300만원을 들여 기능인영림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영 방식으로 벌채 작업중에 있다.

벌채작업은 소형원치를 비롯한 HAM200, 타워야더 등 집재장비를 활용한 기계화 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임내에는 임목 반출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로 외에는 산림훼손이 거의 없다.

이번에 벌채하여 생산된 임목은 가구재와 합판용재 등 일반용재와 펄프재, 보드용재로 구분해 최대한 수집하여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잔가지는 양구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게 팔감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은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은 생장이 정지되어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벌채후 성장속도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좋은 수종으로 바꾸어 주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경제림 육성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위한 편백나무 시범조림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국유림에서 올해 첫 나무심기를 시작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2월 25일(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보다 약 일주일 앞당겨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나무심기 착수행사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며, 경제성이 높아 용재생산과 바이오순환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ha 5천 본을 기준으로 10ha의 면적에 2~3년생 편백나무 5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인근 김해시 관계관, 민간단체, 산림조합, 지역주민, 어린이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꿈과 희망의 나무심기를 한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생태적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역특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조림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목재소비량은 41m³(5톤 트럭 8대분)이다. 이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약 4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양이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연료 대체자원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바이오매스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에 목백합, 편백나무 등 시범림을 조성하여 정부가 향후 50년 비전으로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발맞추고자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권영계 소장은 국유림경영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자원 육성, 지속적인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3.2일부터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 일반에 서비스

내 산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까?
울 봄에는 어느 산을 등산해 볼까?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3.2일부터 일반에 서비스하는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htt://fgis.forest.go.kr)」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는 맞춤형조림지도, 100대 명산 등산정보, 전국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정보 등 각종 유용한 산림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우선 전국의 모든 산림에 대해 현재의 수종분포와 수령정보(임상도), 지역별로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조림권장 수종정보(맞춤형조림지도), 산의 높이, 경사도, 방향, 토양정보(산림입지도) 등 세부 산림지리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요즘같이 나무심기에 적합한 계절을 맞아 본인 소유 산지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에 접속, 지번을 입력하면 현재 본인 소유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분포와 더불어 산지의 토양, 기후, 경사도 등 총 35개의 입지환경 및 토양조건을 고려해 성장에 적합한 조림권장 수종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니더라도 지번이나 위치만 알고 있으면 전국 어느 산림에 대해서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는 산림청이 정한 전국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정보와 인접한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보 등 각종 산림이용정보도 제공해 준다. 즉, 사이트상에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별을 선택하면 구역내 존재하는 100대 명산이 나타나고, 등산하고 싶은 산을 선택하면 해당 산의 기본적인 소개와 더불어 추천 등산코스, 산행 포인트는 물론 인근의 볼거리, 먹거리,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해당 산에서 가까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숙박 및 수목원 관람과 연계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개인GPS를 휴대한 등산객이 많은 가운데 등산 후 개인GPS정보를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자신이 등반했던 등산코스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만의 등산지도 제작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는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과 같은 전국 산림행정기관의 위치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의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는 누구라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전국 산림에 대

한 항공사진촬영과 분석, 산림현장조사를 거친 후 인공위성 등 최첨단 지리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접목시켰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지난 50여년간 종이도면으로 관리해 오던 산지관리를 디지털화하여 본격적인 산림과학 경영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국민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예산절감」, 「대민서비스 품질향상」,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지도를 정밀화(1:5,000)하고 정확하고 다양한 고품질의 산림공간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하는 등 21세기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 대응 전국 3천7백만 그루 나무심기

봄철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나무심기가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은 올해로 64회째를 맞는 식목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1천ha에 3천7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고 지난 2월 하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맞춘 나무심기를 추진하기 위해 남부지역은 3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중부지역은 3월11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부지역은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나무심기에 적합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역별 나무심기 기간 : 남부(3.1~4.10), 중부(3.11~4.20), 북부(3.21~4.30)

소나무 등 경제수조림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대비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450개소의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경제수를 식재하여 장기적인 목재이용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벌채시기에 도달하여 생산력이 쇠퇴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림을 벌채하여 펄프 등 산업용재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탄소흡수능력이 크고 빨리 자라는 백합나무 등 속성수 4백만 그루를 식재하여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펠릿보일러의 원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은 오는 2013년까지 5만ha를 조성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흡수원 500만그루 나무심기”, “희망의 숲 조성”, “생태한방밀원숲 조성” 등 다양한 나무심기가 추진될 계획이다.

• 중국·몽골 사막화방지 조림으로 국제사회 기여

이밖에도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조림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3,000ha와 황사 발원지인 중국 쿠부치사막에 1,400ha를 조림하

여 그린벨트를 만들고,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1만4천ha의 해외조림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백만 그루 나무 나누어주기

또한 산림청은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에 나무를 심으려는 산주에게는 1ha당 약 300만원 상당의 조림비용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조림수종을 선택해 심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지도」를 개발하여 산림청 홈페이지와 산림GIS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4월5일 64회 식목일을 전후하여 약 1백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전국 153개소에서 나무심기를 직접 체험하는 「내나무같이 캠페인」을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산림청 운영권 산림자원국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공장은 산림이며, 나무심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이라면서, “나무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국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추모목 사용료, 가족목 1그루 최고 연20천원, 공동목 연4천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지난 '07년부터 경기도 양평에 조성을 시작해 오는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이 「하늘숲추모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국유 수목장림의 위탁관리기관과 세부 운영규정도 4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 국민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은 '하루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공원'이라는 의미의 「하늘숲추모원」이며,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은 지난 2월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로 결정됐다고 4일 산림청이 밝혔다.

또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에 있어서는 추모목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고인이 함께 안장되는 「공동목」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사용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을 통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최장 60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은 무용기 매장과 용기 매장이 모두 가능하나 용기 매장시에는 용기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여야 한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최고 연간 20천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최고 연간 4천원으로 정했으며,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연간 45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15년 치를 선납해야하며 추모목의 위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수는 5위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목의 경우에는 10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양수 및 사전 예약은 금지되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목장림의 사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개장 이후부터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을(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하늘숲추모원의 운영규정을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확정했으며, 사용자 및 관리비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분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한편 수목장은 묘지로 인한 국토잡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확산시켜나가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도 양평의 국유림 10ha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 오는 5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산림분야에서 지역경제난 극복 돌파구 찾는다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예산 조기집행과 에너지·지연절약으로 산촌지역 주민·임업인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3개 분야 6종의 녹색일자리 창출로 연인원 10,169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1일 양구군청,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녹색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여 경제난 극복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이외에도 71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 60%(약 42억원) 이상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림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속성 있는 사업에 대한 공백기간 최소화, 지역주민 소득창출사업, 사유림 매수 등을 적극 추진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리소장실과 사무실에는 각각 녹색일자리 고용현황·예산 집행현황 상황판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부터 실천해 온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대 실천하여 출·퇴근 시 카풀 활성화, 난방기구 등 전기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사무용품 등의 물자 절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산림공무원이 먼저 희생하고, 산림분야에서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전직원이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개최된 양구지역 농업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회에서도 기관·단체장에게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산림관리 활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하였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사회 경쟁력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도시인의 녹색쉼터 도시숲, 올해 361개소 신규조성

- 산림청 올해 도시숲 조성예산 839억원, 전년대비 30% 확대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올 한해 총 8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361개소에 걸쳐 368ha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과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대폭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후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에 투자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30%나 증가한 규모로, 우선 도시지역 내·외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토지와 산림에 숲을 조성하는 국·공유지 도시숲, 산림공원 등에 711억원을 투자하고, 가로수 조성 분야에 97억원을 투입해 도시숲과 도시외곽 산림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312개교의 학교에 31억원을 지원하여 학교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심의, 평가, 계약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통해 현재 도시숲 조성 대상지 625개소(가로수 포함) 중 40%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중 14%는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3월 들어 본격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도시숲 조성사업의 80%이상 발주, 70%이상 자금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는 361개소의 신규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여 전국적으로 총 1,098개소의 도시숲 및 산림공원을 갖출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도시숲경관과장은 ‘최근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도시숲 조성에 많은 관심과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시민을 위한 녹색쉼터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2010년까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20억 투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해발 800m 청정지역인 횡성 둔내 숲체원에 2010년까지 국내 최고의 숲치유 프로그램과 시설을 구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치유공간 설계를 위한 전문가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현장토론회 : 3. 10.(화) 10:30 숲체원
(국민대 김기원교수와 20여명)

현대인들은 숲이 사람에게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숲에서 하룻밤 머물다 떠나곤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방치된 우울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숲치유센터를 횡성 둔내 ‘숲체원’ 402ha에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조성한다.

‘치유의 숲’은 건강진단 및 산림요법 처방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동치유시설 등을 갖춘 요양의 공간, 배움의 공간, 만남의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공간 설계를 위한 현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장토론회 : 3. 10.(화) 10:30 숲체원
(국민대 김기원교수와 20여명)

숲은 현대인의 건강증진, 생활습관성 질환 개선을 목적으로 숲을 접했을 때 환자의 치료효과가 높았다는 Caplan의 American Journal of Insanity 학술보고(1967년)를 시작으로 숲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기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혈압, 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환문제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인터넷과다사용 문제개선, 우울증과 불안감 개선 등을 위한 숲치유프로그램을 숲체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숲체원에 그동안의 숲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시설이 집중투자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치유 효능을 극대화한 국내 최고의 치유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치유의 숲길, 자연형 크나이프(물치료시설)와 피톤치드사우나 시설등을 갖추어 숲의 치유인지를 활용한 숲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신속되는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이 건강상태를 진단함으로써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숲의 상층부위를 순환하는 Tree-Top Bridge와 자존감 증진과 감각치료를 위한 유럽형 산림체험시설인 Forest Adventure가 도입되어 명실상부한 국내최고의 숲치유센터로 운영된다.

특히, 숲치유프로젝트에는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병원, 국립산림과학원, 미국Rites of passage 등 20여개 의료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고 있어, 민관학 공동으로 운영되는 본 숲치유센터에서는 이용대상별, 질환별 특성화된 숲치유프로그램 연구와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 횡성 숲채원이 갖고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과 국내유일의 숲치유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치유의 숲”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숲치유센터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